

영화 어게인

오디션 대본(세현, 가출팜역)

각본 장혜경
연출 홍성상
제작 (주)크리허브

#4 설이 집 거실 (설이 회상)

와장창! 살림살이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른다. 엄마의 비명 소리!
한쪽 바닥에 입술이 찢어진 채 쓰러져 있는 설이. 엄마 달려와 설이를 온몸으로 감싼다.

엄마 (누군가를 향해) 애를 왜 때려! 차라리 날 때려, 날!!!
설이 (엄마의 품속에서도 서글프다,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흐른다.
남자가 엄마를 때리는지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이 연달아 느껴진다. 왜,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. 내가 맞는 것도 싫었지만 나 대신 엄마가 맞는 것도 싫다. 더는 참을 수 없다)

초인 같은 힘으로 엄마를 밀치고 일어난 설이,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들고 만취상태의 남자를 있는 힘껏 내리친다. 그 위로 겹치는 엄마의 비명 소리....!

세현 술만 처먹으면 그저 폭력이야. 그 새끼....

#5 대응의 원룸 밤

바닥에 뒹구는 술병들. 여기저기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아이들. 설이와 세현만 벽에 기대
채 앉아있다.

세현 (맥주 캔 들고, 취기 있다) 씨발, 다 똑같네. 나두 그래서 나왔는데.
그래두 넌 계부지, 난 친아빠데도 때려. 멀쩡한 정신엔 줄라 겁쟁이 새끼가.

하고는 벌떡 일어나 반지하 창문을 연다. 설이, 지켜보고 있으면 주머니 뒤적이더니 담배를 꺼낸다.

세현 (설이와 눈 마주치자) 필래?
설이 (뻔히 보다가 부스스 일어나 곁으로 간다)

세현, 설이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네고 라이터를 켜다. 설이가 멍하니 들고만 있자, 입에 물라
는 식으로 동작을 취한다. 설이 담배를 입에 물면 세현 불을 붙여주며 숨을 들이쉬라는 듯
표정 지어 보인다. 설이, 시키는 대로 하려했으나 콜록콜록! 거칠게 기침해대는.

세현 (한심한 듯 보며 담배 뺏어 자기 입으로 빨고) 침엔 다 그래. ㅎㅎ
근데, 여기 생활비 내야 돼. 대응이 오빠(/형이)가 너 일자리 알아봐 줄 거
야. 여기 룰이 그래.

설이 (눈물, 콧물 흘리며 고개 끄덕인다)